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교환/방문학생/한학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파견국가	미국	파견학교명	보이시 주립대학
	파견시기	26.01.08 ~ 26.05.08	파견 기간	6개월
파견정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Comunication 4	영어로 소통하는 수업 리스닝과 스피킹이 주가 됨.	
		Grammar 5	영어의 문법에 대해 살펴봄.	
		Reading and Writing 5	영어소설과 영어주제의 글들을 읽으며 에세이를 씀	
체험 수기	- 작성방법: 최소 2페이지 이상 기술, 후배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과 사진 첨부(숙소, 강의실 필수 포함)			
	I.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 보이시 주립대학은 아이다호 주에 있는 가장 큰 도시로 해발 약 90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날씨는 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며 여름은 고온 건조하여 조금더 개운한(?) 더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 가을, 또한 캘리포니아랑 가까워 여행가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보이시 주립 대학의 마크는 주황색과 파란색이 들어가는 말의 형상인데, 보이시의 지는 해 즉 석양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이시의 석양은 태어나서 본 석양 중에 가장 황금빛이었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 파견 전 절차 – 파견전 자격요건으로 3.0이상의 학점과 토익 또는 토플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행정과정은 주로 어학원과 대학 사이에서 다 맞춰주셨고 저희가 준비할 것은 개인 짐, 생활 계획, 교통편 찾기입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고, 보이시자체에서의 수업은 파견 전 이메일을 통해 간의 평가를 한뒤 보이시 주립대학에서 자체 판단하에 수업을 배정해줍니다. 기숙사는 IEP(보이시 영어 프로그램) 오피스를 통해 통보 받았고 그쪽에서 추천해 줍니다. IEP에 참여한 나머지 한국, 일본, 아프리카 친구들도 같은 종류의 기숙사로 배정받아 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았습니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

IEP Office: IEPinfo@boisestate.edu

Sharon Westbrook: sharonwestbrook@boisestate.edu

주로 이두분이 학생들과 연락 담당해서 꾸준히 접촉하셨습니다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3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문법, 커뮤니케이션, 읽기와 쓰기 오른쪽보시면 시간과 어디서 수업이 이루어 지는지 나와있습니다. 교실과 시간에 관련해서는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잘 기억하셔서 수업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봄학기 한국기준 1학기를 다녔었는데 Spring -A와 Spring-B로 학기가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시작하기 직전 일주일은 Spring break라고 봄방학을 주는데 이때 미국에서 여행하고 싶으셨던 도시나 지역을 방문하셔서 여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미국인 친구들도 이때 본가에 방문하거나 친구들과끼리 놀러가거든요! 캠퍼스가 텅텅비는 시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추천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3개의 수업다 들어야 함으로 선택권은 없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 문법 부분은 제가 꾸준히 공부하지 못하여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감히 스피킹과 리스닝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업이나 환경이 영어를 늘리기 좋은 상태입니다.

3. 학습 방법 - 저는 주로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 많이 하려고하고, 영어로 된 팟캐스트나 영상들을 그래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하지는 못하였지만 만약 매일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공부해도 사용해 볼 수 있는곳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국이라는 땅은 그냥 밖만 나가면 영어가 들리니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 입국시 필요한 관련 서류들(I-20, DS-160 등)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입국 절차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현지 물가는 현재 원화 to 달러가 많이 비싸서 당근 비쌉니다. 학교 주변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Winco가 가장 저렴하였고 학교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월마트나 원코등 대형마트에 가서 사는데 그것보다는 메르디언에 있는 아울렛이나, 로즈 등 싸게 파는곳에서 산다면 정말 많이 돈을 아

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거리가 조금 있어 차로 가지 않는다면 걸어서 2~3시간은 걸어야 해요. 하지만 학생증으로 보이시내에 있는 버스는 모두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니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버는 너무 비싸거든요. (겨울 보이시는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 필수!)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이시는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울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시내나 복합 쇼핑몰들을 가게된다면 정말 많은 음식점들을 찾을 수 있으며, LA나 뉴욕등 큰도시에는 한국마트인 H-mart는 없지만 그래도 걸어서 30분 거리에 소소하게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자산이 넉넉하게 있다면, 한국음식도 접하기 편하지만, 제약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한국음식을 만들어먹거나 사먹기에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캠퍼스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보이시에 거주하시는 한국인들이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매주 금요일날 목사님택에 가서 한식을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중에 On Campus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SNN을 발급 받아야 급여를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요. 한국과 다르게 절차가 느려 대략 2~3주는 걸렸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교내근무에 관해서는 IEP Office에서 잘 설명해줍니다. Student Union Building이라는 교내 식당등 학생을 위한 빌딩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IEP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은 대중교통이 버스가 있는데 한국과 다르게 어떤 버스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쇼핑몰, 월마트 등 캠퍼스와 거리가 있어 차량을 이용해야하는데 버스가 없다면, 우버, 라임, 친구의 차를 이용해야합니다.

메르디언에 있는 유명 쇼핑몰은 거즘 12km 떨어져 있거든요. 통신은 저는 민트모바일 6개월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가격이 10만원~20만원 사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구매하시면 할인해주니 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의료 관련하여 저는 다행히 병원이나 보건실에 가지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유학생보험으로 병원 금액 보장범위를 설정하여 저에게 맞는 상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식료품 관련해서는 Food Fantry라는 학교내 무료로 식재료들을 나눠주는 건물이있는데, 이는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상품들을 마트에서부터 가져와 학생들에게 쏬파로 나누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여기에 많이 들러 식재료들을 가져와 기숙사에서 요리를 많이 해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학생증 가져가야해요)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 보이시는 자연도 풍부하여 주변에 있는 산에 하이킹을 가거나 겨울이면 오는 스키시즌, 골프, 레프팅, 수영, 샌드슬라이딩 등 많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경비 - 대략 200만원 (비행기 값포함, 저는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올랜도 등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식비 - 사람 by 사람 입니다. 쓰는 사람은 쓰고 아끼는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FoodFantry 통해 최대한 아낄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갔는데 미국음식들을 먹어보아야한다면 거즘 한끼에 최소10~15달러는 하니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비용- 10000달러 2026년 1학기 기준 1500만원(숙박비도 포함 기숙사비는 거즘 500만원)

항공료 - 미국 내에서 여행가실 때 국내 항공은 국외 항공권보다 싸서 비싸도 20만원 정도 나왔던거 같아요.

합계 - 대략 2000만원 초반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 저는 미국이라는 땅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문화적으로도 한국과 많이 달라서 멀리만 생각했습니다. 막상 가려하니 기대감도 있었지만 혼자 그곳까지가서 다른 언어로 생활해야하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막상 가면 미국또한 사람이 사는 땅이고, 적응하면 어느 곳보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별로 긴 시간이 안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말하는게 좋은것 같아요.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영어에 대한 귀와 입이 조금 트였으니,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려고합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신다면 후회는 안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값진 경험이에요

4. 기타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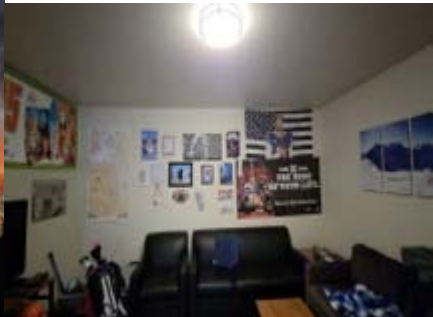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1.보이시 남자 농구팀



2. 보이시 노을



3. 미국인 룸메이트들이랑 살았던 기숙사